

## 일본 최대 액정패널 제조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

- 일본 최대 액정패널 제조업체인 저팬디스플레이(JDI)가 일본 경제산업성 소관 관민 펀드인 산업혁신기구로부터 750억 엔의 지원을 받게 됨
- JDI는 성장력분야에 한정한다는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의한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유기EL패널의 사업화에 나섬
- 이에 따라 JDI는 스마트폰 및 차대용 액정패널과 산업용·TV용 유기EL패널을 양륜으로 하여, 한국 및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

### □ 최대 액정패널 제조업체 저팬디스플레이(JDI)에 750억 엔 지원

- 일본 최대 액정패널 제조업체인 저팬디스플레이(JDI)가 일본 경제산업성 소관 관민 펀드인 산업혁신기구로부터 750억 엔의 지원을 받아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유기EL패널의 사업화에 나섬
- JDI는 혁신기구가 75%를 가진 JOLED주식중 35%이상의 지분을 2017년 중에 양수받음
  - JOLED는 파나소닉과 소니의 유기EL사업을 통합한 연구개발회사임
  - JDI는 JOLED에 대한 출자비율을 15%에서 50%로 인상하게 되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은 백수십억 엔이 될 전망. JOLED주는 파나소닉과 소니도 5%씩 보유하고 있음
- 액정과 유기EL을 양륜으로 한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JDI는 지배주주인 산업혁신기구로부터 750억 엔의 자금지원을 받게 됨
- 상환우선도가 낮은 후순위채와,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신주예약권부사채(전환사채)를 조합하여 자금을 조달, 생산설비의 증설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

### □ 저팬디스플레이의 부진


- 히타치제작소와 도시바, 소니의 사업을 통합하여 2012년에 설립한 JDI는 좀처럼 코스트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 3월기까지 2기 연속 최종적자를 낸

- 매출액의 과반을 점하는 미국 애플의 아이폰의 판매부진에 의한 수주부진도 있어 2016년 봄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
- 이에 저팬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 액정에 의존하지 않는 전략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산업혁신기구의 자금지원을 발판으로 신용력을 높이고 거래은행으로부터의 융자기반도 다져 재무구조를 안정시키려는 목적도 있음

## □ 정책적 지원의 요건

- JDI가 산업혁신기구에 지원을 요청한 것은 6개월 전임.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배경에는 경제산업성이 구체적 지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산업혁신기구로 하여금 명확한 성장전략을 제시토록 요구했기 때문임
- 산업혁신기구에 의한 자금지원은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의해 성장분야에 한정되고 있음
  - 2016년 들어 산업혁신기구가 샤프에 출자를 하려했을 당시 국가에 의한 구제라는 비판도 나왔음. 이에 경제산업성은 이번에는 단순한 자금융통성 지원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견지
- 경제산업성이 자금지원을 검토하는 산업혁신기구에 요구한 것은 단기와 중장기 쌍방에서 JDI의 성장전략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임
  - 단기적으로는 고정밀 제품과 접이 가능한 액정으로 미국의 애플과 중국·화웨이기술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기 시작
  - 문제는 중장기임. 차기 성장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JDI가 새로운 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차대나 가상현실(VR)단말용 패널만으로는 불충분함. 이에 필요한 것이 유기EL 패널을 사업화하여 고객을 넓히는 것임
- JDI가 자회사화 하기로 한 JOLED는 파나소닉과 소니의 유기EL사업을 통합한 연구 개발회사로서, 대·중형 유기EL패널을 저비용으로 양산하는 기술의 확립을 서두르고 있는데, 영업·생산부문을 가진 JDI와 통합함으로써 사업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음

## □ 유기EL패널의 양산기술력, 한일간 경쟁에 관건

- 대·중형 유기EL패널은 의료기기나 방송기기 등의 산업용, TV용으로 활용될 전망이다
  - JOLED가 강점을 지닌 인쇄방식의 생산으로 저비용의 양산도 가능
  - 그러나 인쇄방식으로는 영상의 기본인 화소를 미세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음
  - 이에 고정밀 스마트폰용 유기EL은 JDI측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증착방식에서의 제품화를 가속화하여 모든 사이즈의 용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
- 유기EL의 양산은 기술적으로는 어렵고 이 분야의 선행주자인 한국 삼성과 LG디스플레이도 생산효율이 낮은 편임
- JDI는 파나소닉과 소니가 개발·축적해온 제조 장치와 재료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용에서도 유기EL패널의 양산을 서두르고 있음
- 경제산업성도 기술적으로는 잠재력이 크다고 하면서 동아시아 기업들에 비하여 양사의 우위성을 인정하고 있음
  - JDI는 산업혁신기구로부터의 지원을 받아 성장전략을 확실히 하기 위해 유기EL기술을 확립하여 시장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
- 디스플레이산업은 일본기업들이 기술혁신을 주도해왔음
  -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대만 업체들이 기동적인 투자판단으로 생산능력을 높여 일본 전기업체들은 잇달아 사업을 놓다시피 함
- 샤프가 2016년 8월에 대만의 홍하이정밀공업 산하에 들어가 일본계 패널업체는 사실상 JDI와 JOLED 2개사임.
  - JDI는 혁신기구의 지원으로 JOLED를 통합, 한국과 대만, 중국 등 라이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음.

### 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6.12.13.)